

연중 제 15 주 일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기도서 P. 389 A해
 제1독서 (이사 55, 10-11절)
 제2독서 (로마 8, 18-23절)
 복 음 (마태 13, 1-23절)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선의를 민주시민 여러분!

양심적인 언론인과 지성인, 특히 젊은이들과 종교인 여러분!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의 하느님 백성 여러분께 드리는

호 소 문

□ 인 사 말 씀

우리의 목을 조르며 날로 치솟는 물가, 우리를 분노케 하는 구조화된 대형 부조리, 김일성 집단의 끊임없는 남침야욕-우리를 짓누르는 이러한 압력들 외에 또 하나의 폭력때문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차거운 머리로 들으시고, 뜨거운 심장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의 진실을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정의가 눈물을 닦아주고, 진리가 어둠을 밝혀 억압의 사슬을 풀어주며, 진정한 국가안보로 평화를 노래하는 세상을 원할 뿐입니다.

□ 무엇을 호소하는가? (사건의 개요)

최근에 우리의 발은 너무나 자주 묵였었습니다. 일제 치하도 아닌데, 금년 3·1절에도 사제들의 움직임에 통제가 컸었습니다. 특별히 세 분의 사제 (김종택·문정현·김영신)가 강제로 연금되까지 했습니다. 당국에 항의했으나 오늘까지 묵묵부답입니다. 6월 26일에는 서울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다하여 24일부터 각 본당별로 사제들의 동태에 대한 탐문과 지나친 보호조치(?)가 있었습니다. 신교의 자유는 그만두고라도 여행의 자유마저 억압받고 있다는 의심이 가게하는 조치였습니다.

7월 5일, 저희 교구에는 두 분의 새사제가 탄생하는 경하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날 중앙성당과 교구청 주변에는 전북 일원에서 모인 많은 사부 경찰들이 모였습니다. 즐거운 날이라서 당국도 함께 기뻐해 주고, 혹시라도 사제들의 신변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걱정해 주는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구청에 모인 사제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사제들의 서울행을 저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교구청 출입이 처음인 그들은 몹시 당황하여, 끝내는, 자기 관할 본당 사제의 소재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구청 출입문을 열고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나갔던 사제들은 타의에 의하여 교구청에 되돌아 왔습니다.

아무도 서울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새사제의 첫미사에 참례키 위해 교구청에 모여있던 사제들인데도 당국은 7월 6일의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회관에서 모종의 모임이 있다고 해서 사제들의 미행과 감시를 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계속되는 억압에 더 이상 좌시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천주교 신부가 공산당이나? 미행 감시를 즉각중단하라"는 등의 현수막

을 걸고 5일 오후 6시반경부터 가톨릭센터 옥상에서 우리의 뜻을 알렸습니다. 성가와 의사표시(구호 웨칭), 기도가 한시간여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일은 삼시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6일 오후, 당국은 이일의 해결을 위해 문정현 신부를 연행하여 조사하려 했습니다. 파티마 성당에 와 있던 이수현·문규현 신부 등은, 연행 조사보다는 당국이 파티마 성당에 와서 조사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시되고 기동타격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제 1차로 이수현·문규현 신부가 강제로 경찰차에 실려졌습니다. 성당을 떠났던 차량은 다시 파티마 성당으로 돌아와 문정현 신부를 연행하려 했습니다. 잠겨진 사제관의 창문이 무참히 뜯기고 말았습니다. 방충망의 이중문이 모두 뜯겨졌습니다.

도매제 살인범을 잡으려는지, 밀수배나 도박꾼을 잡는건지, 아니면 서부영화를 찍는건지 쉽게 분별이 안했습니다. 사제관 안에 문정현 신부와 함께 있던 박종상 신부가 창문을 뜯고 넘어오려는 경찰관과 시비하다 손목이 잡혀 창틀너머로 끌려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목덜미를 잡고 두 사람은 한팔씩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박신부는 경찰의 손과 발로 무참히 구타를 당했습니다. 경영화의 한 토막을 연상하시면 그 분위기가 쉽게 그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정현 신부와 반죽음이 된 박종상 신부가 차에 실려졌습니다.

< 2면에 계속 >

숲 정 이 산 채



판권자를 중단하라!

(2) 숲 정 이

〈1면에서 계속〉

차 안에 있던 문규현 신부는 박종상 신부의 고통이 너무나 참혹해서 결으로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 보려 했다가 억센 손에 의해 목이 뒤로 끌리는 제지를 받았습니다가 갑자기 차가 멎고 박종상 신부가 내려졌습니니다. 소위 유기(遺棄)입니다. 길바닥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이 있다면 병원에까지 데려다 주어야 할 경찰들이, 자기들이 두들겨 때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한 국민을, 소위 한 성직자를 길바닥에 버렸습니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은 상식을 앞세워 이 행위를 부인합니다. 그러면, 그 차에 탔던 세 신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섭니다. 만일 이러한 중대한 일에 거짓말이나 하는 사제가 있다면 바로 그들은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박신부를 내려놓은 차는 전진하려다가 문규현 신부를 강제로 하차시켰습니니다. 문규현 신부는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니다. 지나가던 대학생의 도움으로 차를 잡아 문규현 신부가 박신부를 성모병원에 입원시킨 시간이 밤 10시 50분경이였습니니다.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보통의 경우보다 다섯배의 진통제로도 잠을 못이루던 박신부가 잠이 든 것이 새벽 3시경이였습니니다. 박신부는 지금도 고통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X-Ray 촬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나 박신부는 계속 아파하고 있습니다. 박신부의 배와 목 부분에 멍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슬픈 일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사건의 전모를 믿지 못하고 당국자의 말에 더 귀기울이는 교향자매들이 더러 있어 우리를 혼란시키는 일입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간시키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가 훔쳐갔다는 말입니까?

7일, 교구내 사제들이 거의 모였습니니다. 8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우리들은 진지하게 사태를 논의했습니니다.

10일 밤에는, 예정대로, 중앙성당에서 정의평화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니다.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신자들은 사제들과 함께 성당 정문을 나섰습니니다. 대기중인 기동타격대가 특수장비까지 준비해 놓고 우리들을 막았습니니다. 같은 시간에 가톨릭센터 옥상에서도 시위행위가 있었습니니다. 그런데 사고는 또 생겼습니니다. 가톨릭 센터에서 중앙성당으로 오던 사제와 수녀, 평신도들이 경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니다. 방망이가 난무하다가 강덕행 신부를 쓰러트렸습니니다. 강신부가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니다. 수녀들의 수건이 다섯이나 벗겨졌습니니다. “누가 신부님을 구타할 수 있느냐”고, 또 “누가 수녀님의 머리에서 수건을 벗길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니다.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욱 큰 문제인 것입니니다.

11일 밤에는 전통성당에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니다. 이날은 비극이 연출된 날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고, 책임자는 아랫 사람들을 뭇기고,

그래서 그냥 웃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습니니다.

이날부터 사제들은 단식에 들어갔습니니다. 단식 취지문이 발표되고, 6개의 요구사항을 내건 단식이 교구청에서 뜨거운 성가와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니다.

12일에는 성체회 수녀들이 수녀원에서 사제들의 단식에 동참해 주었습니니다. 이날은 복자성당에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니다. 시내 고등학교의 지도교사들은 행여나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하여 지도에 여념이 없습니니다. 복장위반도 지도해 주고, 자전거 2인승도 지도해 주었습니니다.

일선에서 애쓰는 선의의 말단 경찰관들과 교사들의 노고에 마음이 걸립니니다.

□ 우리들의 호소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절차도 생략된채 사제관의 문이 부서져 나가고, 구둣발이 사제관을 난입한 사건이 한국 천주교회 역사에 몇번이나 있었습니니까? 일제시대와 6.25당시를 제외하고 또 있었습니니까? 이렇고도 대한민국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신 세계가 무자비한 발길 질 앞에 속수무책으로 있을 때, 그 사회를 끝장이라고 말해서 지나칠까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경찰이 무자비한 폭행으로 실신을 시킨 사제가 어느 법치국가에서 있습니까? 더군나다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노상에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피의자에게도 고문말을 써야 한다는 자명한 법이론 앞에서 소위 성직자에게 “이 새끼도 내려” “저 새끼도 내려”라는 입에 못담을 저속한 욕설의 난무를 뭐라고 변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만행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동료사제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해서 흥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성직자에게 이러한 만행이 저질러질 때, 힘없고 말없는 우리의 우적스러운 형제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고 듣지도 못한 뿐더러 말할 수조차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습니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고자”(루카4, 18-19)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방직의 동물세례를 받은 쫓간 이들 편이 되었고, 합평 고무마 사건의 농민들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 억울하게 고통받는 대학생들과 바른 언론인들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면에 계속〉

안 경 신장개업!

군 산 이태리 안경원

主 席 도 민 고 (석수)

군산시 중앙로 1가 10

전화 군산 ③3038번

(안과처방 조제 각국수입렌즈 구비)

☆ 교우 여러분의 세무 대책 상담 환영합니다

- 업무 ☆세무고문·장부조직·기장지도·계세신고대리
- ☆법인설립·청산·결산에 따른 세무업무대리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기타업무대리

세무사 임 증 울(마태오)

- 사무실 : 전주시 경원동 3가 34-7(세무서 후문 앞)
- 제일고시학원 2층(전화 ③ 2646)

(3) 숲 정 이

<2면에서 계속>

우리는 또한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입니다. 우리의 하느님과 신앙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와는 하나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용공시하니, 세상천지에 이러한 사례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가톨릭 노동청년회와 농민회를 용공단체로 몰아부치고 사제들까지도 미행감시하자니 국고 손실도 얼마나 큼니까? 이제 우리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걱정해 주십시오.

1. 선의의 민주시민 여러분

날로 치솟는 물가고에 얼마나 애쓰십니까? 평생을 벌여 저축해도 모우기 어려운 액수의 몇천만원짜리의 아파트 프리미엄에 얼마나 헛것증을 느끼십니까? 저희들은 결코 우리의 조국을 시끄러울 와중으로 몰고가기 위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엄연한 현실들을 소리높여 외치고,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아 보자고 호소할 따름입니다. 저희들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2. 양심적인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사회의 불기둥들입니다. 불기둥이 꺼져갈 때 우리들은 어디서 그 빛을 찾아야 합니까? 어려운 체제 아래서 고통당하는 여러분, 그 점을 함께 나누어 지고 같이 가십시오. 광복의 크낙새 한 마리 보아야 비록 가난해서 풍물은 먹어도, 그 조각이들 생명이 더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해야 할 사도들입니다.

3. 양심적인 지식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회의 거울입니다. 거울이 흐려질 때, 우리는 제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역사를 창조해 나갈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역사의 기수여서는 안됩니다. 왜 이땅에는 선생은 많아도 스승이 없으며, 학생은 많아도 제자가 없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스승입니다.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할 스승들입니다.

4. 젊음이 여러분

여러분은 내일의 이 나라입니다. 뜨겁고 순수한 젊음이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내일 우리는 한중의의 국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젊음이 여러분, 밝고 알찬 내일을 위해 고민하고 사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뜨거운 심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십시오.

5. 종교인 여러분

우리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비록 종파는 다를지라도, 여러분의 하느님이 바로 우리의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손가락이 아픈면 온몸 전체가 아픕니다. 우리의 고통에 동참해 줄것을 믿습니다.

6. 한국 천주교회의 하느님 백성 여러분

존경하는 주교님, 수도회 장상님, 동료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 천주교구의 이 어려움은 바로 한국 천주교회의 아픔이라고 주저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주교구 사제들에 대한 폭행, 수녀들에 대한 무례, 사제관에의 난입이 결코 강권자의 불만은 아닌듯 싶습니다. 더욱 기도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978. 7. 13

천 주 교 전 주 교 구 사 제 단
위 뜻 에 동 참 함.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입심이 (259) 김병오



建設部
시멘트 제품 제조 免許業체
신 흥 공 업 사
파티마 성당 입구
☎ 6016, 2519
李敎成, 김화자(클라라)

◇경운기 분무기 전자동 탈곡기
트랙터 ·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가정용 목욕탕, 온수,
난방 시설 및 수리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진안, 장제, 대리점)
진안전화 577번
장제전화 주간 9번, 야간 40번
※교우분들께서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보일러 시공담당(시공면허30호)
새마을보일러 전북총판
지역 대리점 모집
중앙설비상사
전화 ☎ 5614
전주시 금암동 710~11

★ 양심을 찾자 ★
현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금기사 모집)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교버)

◎ 건강 관리 센터 ◎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
(시대버스 승차장)
전주 육교옆 중앙시장통
(전화 ☎ 4577, 5789)

금 · 은 · 보석 · 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기)
☎ 2-3301 (자택 2-8548)



※ 교구 사제단의 단식 중 김병환·이순성·정태현 신부 줄도로 입원 가료.

□ 요구사항-①천주교 신부를 미행 감시하지 말라. ②내무부 장관은 천주교 신부를 구타, 유기한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③교회 기관지를 압류 지연시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④그리스도교를 용공의 노릇으로 전전한 홍지영을 엄단하라. ⑤구속된 민주 인사, 학생, 근로자, 농민회원들을 석방하라. ⑥가톨릭 노동청년회와 산업 선교회를 용공시 하지말라.

□ 사제단의 요구사항 관철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격려해 드립니다.

※ 교구 평협 긴급 총회에서 사제단과의 일치 결의, 폭행을 지시한 책임자와 당사자 엄중 처벌 요구기로, 신앙의 자유가 깃잡히는 현실을 교황청과 한국 주교단 및 정부당국에 진정기로 함의

※ 고창 분당과 이리 창인동 분당 교우들도 현지에서 단식에 돌입

1. 신부·수녀 성서 연구회(19일<수> 오후 5시-22일<토>, 가톨릭 센터)
2. 중보 등 학생 연합회 제9차 지역대회 1일 앞당김(26<수>-29<토>, 무주앞 섬)
3. 대학생 연합회 지역대회(25<화>-28<금>; 장수 덕산공소, 신청장소: 덕진 학생회관)
4. 원광대 가톨릭 학생회 하계봉사(12<수>-22<토>, 원평 뒷골공소)
5. 주일학교 교리교사 수련회(26<수>-29<토>)
6. 엠마누엘 공개 쉼(559차)...오늘 11시, 중앙성당 강당

□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17일<월>오후 8시, 가톨릭 센터, 강사: 문동환 박사, 주제: 3:1사건)

(중앙)

전화 ③651
③3874

주임 신부 서정범
보좌 신부 송승열
보좌 신부 임영배
사도 회장 이복석

1. 성모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양로원)
2. 영세사진이 잘 나왔습니다(사무실)
3. 교무금은 월별로 납부하세요
4. 교적부에 부차할 사진 가져오세요(사무실)
5. 청년합창단 정기총회: 17일 오후 7시 강당
6. 청년합창단 제 5 차 단합대회(하계)
장소: 7월 22일(토)~24일(월) 2박 3일
일시: 진안군 상전면 죽도
대상: 청년합창단원과 신입을 원하시는 분들
7. 청년합창단에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일 오후 8시 30분 강당으로 와주세요
8. J.O.C. 일반회: 일시 22일(토) 오후 7시~10시
장소: 중앙성당 강당
강연: 젊은이들의 여가선용
강사: 조해형 선생님

□ 지난주 봉헌금: 137,280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김성복

1. 신용조합 월례회의: 18일(화) 저녁미사 후.
2. 성우회 야유회: 소양천(소양다리)
23일 오전 10시 현지 도착.
회원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3. 첫 영성체자 교리: 8.1~14일까지
7월 30일까지 접수 바람. (15일 첫 영성체식)

□ 지난주 봉헌금: 61,29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강덕행
사도 회장 유제상

1. 미사시간 변경
주일: 오전 6시·10시 오후 5시·8시
평일: 월·화·수·목-오전 6시, 오후 8시
금-오전 10시, 토-오후 5시·8시
2. 아동교리반 방학: 7월 16일~8월 5일
특별 여름 성경학교: 8월 6일~12일
3. 분당 신자의 의무는 다하고 계시는지요?
4. 밀린 봉헌금은 언제 납부 하실런지 카드와 대조하시길...
5. 신축임금미납되신 분 이달 말까지 납부바랍니다.
6. 김보나 수녀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87,584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약속된 봉헌금 미수가 없도록 정성드려 봉헌합니다
2. 환영! 박병준 부제님
7월 8일부터 방학동안 수고하시겠습니다.
3. 주일 공식미사 10분전에 성가를 배웁시다.
4. 1일교양: 오늘-이상기 형제
다음주-조성호 형제

□ 지난주 봉헌금: 142,095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부녀주일: 10시미사 후(어머니, 할머니 회합있음)
2. 반상회: 9반-18일, 10반-19일, 11반-20일
12반-21일
3. 신축임금 신입자 명단
황인구, 조동근(각 120,000원) 박종갑(30,000원)
박복선(12,000원) 정은수(50,000원)
정점순(4,000원) 정옥경(6,000원)

□ 지난주 봉헌금: 40,296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갈노

1. 구역장님 방장님께서 전월 사도회때 드린 유인물(과년도 교무금 미수현황) 보시고 협조바람
2. 예비자 교리: 다음 통지 있을때까지 방학
3. 어머니 성가연습: 매주(목) 오후 2시
4. 중·고생 하기 교리안내
7월 17일 오후 7시 시작-매일
과목-성경연구, 노래연습, 기타
5. 본 신용조합 발전을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합시다
지난주 봉헌금: 108,15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이순성
사도 회장 유석중

1. 꼬미씨음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2. 위도(서해안) 하기 피서단 모집: 80명
주관: 사도회 일시: 7월 31일~8월 2일
회비: 3,000원(교통비, 기타 비용)
※ 주식, 부식, 친구는 각자 부담
※ 미사 예식서(기도서 성경) 지참
3. 꾸르실로 월례회: 9월까지 휴회
4. 예비자 교리: 수-젊은이-이베드로 신부
금-적장인-김스테파노 "
일-일반인-김태파 수녀
일-학생(9시30) 강테레사 수녀

지난주 봉헌금: 133,190원

(파티마)

전화 ③7249

주임 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1. 임시 사도회 임원 각 구역장 회의: 17일 10시
(전원 참석 바람)
2. 성가연습: 토요일 오후 5시
많은 참여 바람
3. 교무금 납입자
황희상(30,000원), 장준동(2,000원)
이현숙(1,000원), 김은숙(1,000원)

□ 지난주 봉헌금: 28,860원